

# 東洋의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

## 墨家의 人格天과 論理學

이런 防禦武器에 대한 관심에서 墨家사상가들은 간단한 기계장치 또는 수학적원리에 눈을 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墨子>의 일부로 들어있는 墨經篇에는 기하학·力學·光學·論理學등등에 걸친 재미있는 기록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

“생명이란 몸과 知覺이 함께 하는 것” “힘이란 물체가 그에 의해 움직이는 것” “원이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등의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발견될 뿐 아니라 오목거울의 그림자가 촛점의 안쪽에 따라 다른것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기록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많은 학자들에 의해 中國 古代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높이 평가되기도 했다.

이처럼 中國 科學史에 재미 있는 유산을 남긴 墨家의 사상은 또 다른 대조적인 측면에서도 東洋人의 自然觀에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 功利的인 관점에 있던 墨家는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이 가르침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익을 끼치는 자는 하늘이 복을 주며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과 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화를 내린다” 따라서 인간은 서로를 구별없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그의 兼愛說을 뒷받침하기 위해 墨子가 도입한 天의 개념은 뒷날 東洋의 自然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吉凶을 좌우하고 禍福을 결정해줄 수

있는 하늘(天)은 바로 唯一神이며 또한 人格神이다. 또 이런 人格神으로서의 天은 墨家사상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周代 이전에 이미 나타났던 이와 같은 天에 대한 믿음은 墨家에 의해 크게 영향있는 사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宗教的인 天의 관념은 그후 漢代의 儒敎속에 깊이 파고들어 正統儒敎사상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墨家의 전통은 중국과학사에 대조적인 두가지 경향을 남겼다. 하나는 論理學, 光學, 幾何學, 力學등에 중요한 시작을 보여주었는가하면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自然觀을 불어넣은 非科學的인 전통을 남긴 것이다.

## 名家와 論理的 思考

墨家의 사상속에도 나타나는 論理的인 사고방식은 科學的 태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소크라테스 이래의 그리스 哲學이 西洋史에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 사고방식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戰國시대의 중국과 고대 그리스의 사상적 전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차이가 생기게된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그리스의 정치·사회 구조는 중국과 달리 都市국가이면서 자유시민이 토론을 통해 정치가 진행되는 民主的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辯論術에 능해야 했다. 자연히 그리스에서는 論理的 사고방식이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춘 셈이었다. 中國의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言語의 구조에 이미 論理的 思考를 저해하는 요소를 감추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影響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이에 本誌는「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 註> ……○

고 있었다. 베버(Max Weber)가 <論語>의 구조를 보고 말했듯이 중국어란 “인더안 추장의 말같은” 非論理的인 것이다. 고정된 문법이 있지 않은채 중국어는 글자의 위치에 따라 경우에 따라 명사로도 형용사로도 또는 부사로도 사용된다.

이런 약조건속에서나 戰國시대의 諸子百家 가운데에는 論理的 思考에 공헌한 학자들도 없지는 않았다. 墨家와 道家의 사상가들도 조금 그런편이었으나 그보다 더욱 대표적인 사람들로서는 흔히 名家라 불리는 惠施(370~310BC)와 公孫龍(320~250BC)을 들 수 있다.

名家의 대표적 사상가로 손꼽히는 惠施(약 370~310 B.C.)는 道家의 대표적 사상가 莊子(369~268B.C.)와 친한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을뿐 그의 책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莊子>의 몇곳과 <荀子>등 몇가지 책에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의 주장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는 莊子와 함께 강한 觀念論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莊子>天下篇에는 그의 유명한 말로 소위 “歷物十事” 또는 “惠施의 열가지 주장”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남아있다. 그중 몇가지만 들여보자.

① 오늘 越나라로 떠나 어제 그곳에 도착한다. (今日適越而昔來)

② 나는 天下의 中央을 알고있으니 그곳은(北쪽에 있는) 燕나라의 北쪽에 있고 南쪽에 있는 越나라의 南쪽에 있다(我知天下之中央 燕之北越之南是也).

③ 天과 地는 높이가 같고 山과 鰓못은 함께 평평하다(天與地卑 山與鰓平).

④ 지극히 큰 것은 밖에 아무 것도 없으니 이를 大一이라 부르고 지극히 작은 것은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를 小一이라 한다(至大無外謂之大一 至小無內謂之小一).

이상 네가지만 보더라도 惠施의 말은 모두 悖論(詭

辯)으로 가득 차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표현은 반드시 말장난을 위한 悖論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①의 경우 오랜 어떤 사람이 越로 떠난다면 그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심한 어제 이미 그의 마음은 越에 갔다는 뜻으로도 풀이 된다. “간다”는 행동보다 그 생각이 더 앞선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해 본 것이라는 것이다. 그밖의 다른 경우에서도 함께 발견되는 중요한 공통성은 惠施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판단의 虛妄함을 지적하려고 이런 悖論을 끌어낸 것으로 설명된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거나 이 세상의 중앙은 어디라는 따위의 우리 상식은 인간의 좁은 所見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우주 저쪽에서 볼때 무엇이 무엇보다 높고 낮은지 어느 곳이 中央인지는 알 수가 없다. 모든 판단에는 기준을 어디 두었느냐가 중요한데 惠施는 판단기준이 분명치 못한채 우리들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을 꼬집어 준것으로 풀이 된다.

惠施의 이와같은 태도는 道家의 사상과도 통하는 점이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論理的 思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戰國時代 宋나라 사람으로 梁惠王의 신하로서 일했던 그는 梁의 惠王이 죽은 뒤 襄王 밑에서 9년간 장관으로 있다가 張儀에게 쫓겨났다고 전해진다. 그는 박학한 학자로서 책이 다섯 수레나 될 만치 많았다고도 전해진다. 荀子는 그를 “말에 가려서 實在不를 알지 못했다”(蔽于辭而不之實)고 평했는데 어느 정도 올바른 비판이라 하겠다. <계속>

韓國發明特許協會 新刊案内

中共 工業所有權 制度

국판 294면 미색모조(내지)  
250아트(표지) <가격 5,000원>